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Morning Brief

하루에 하나

2026.8.25

AUGUST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원/달러 환율

1,382.40원 (-4.10원)

KOSPI

6,696.96 (-215.99, -3.12%)

KOSDAQ

813.33(+11.39, +1.42%)

국고채 10년 금리

4.335(-0.041%p)

본 자료는 오늘 발간된 자료의
요약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각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hanafn.com

Global Asset Strategy

글로벌 ETF Weekly	ETF 트렌드 & 포트폴리오: 변화를 살펴야 하는 시기 [박승진]
New K-ETF	삼전닉스 채권혼합: 플러스, 미국채혼합 [박승진]
New K-ETF	TDF 2065 액티브 적격 [박승진]
DIN (Doo It Now)	코스피 방향을 가를 3가지 관문 [김두언]
주간 하나채권	[8월 4주] 바이백 효과는 레벨보다 스프레드에 [박준우, 허성우]
해외채권	[브라질] 첫 인하 직전보다 높아진 장기금리 [허성우]

기업분석

코리아에프티	P/E 3.7배에 불과. 자기주식 취득까지 진행 중 [송선재]
삼아알미늄	하반기, 수주와 스프레드 동시 확대 [한유건]
E1	실적 정상화 확인 [유재선]
한미약품	초기 개발 물질을 선급금 8%, 3조원 규모로 계약 [김선아]

Monthly & Weekly

건설	삼성전자의 주주환원과 투자 [김승준]
----	----------------------

단기투자유망종목

삼성전자, 삼성물산, NAVER, 대한항공, KCC, DN오tomotrb, 농심, SK이터닉스, 실리콘투, 티에프이

하나증권

글로벌 ETF Weekly

HANA Global Weekly | 2026.8.24



Global ETF 박승진 sj81.park@hanafn.com

RA 신민건 mingun.shin@hana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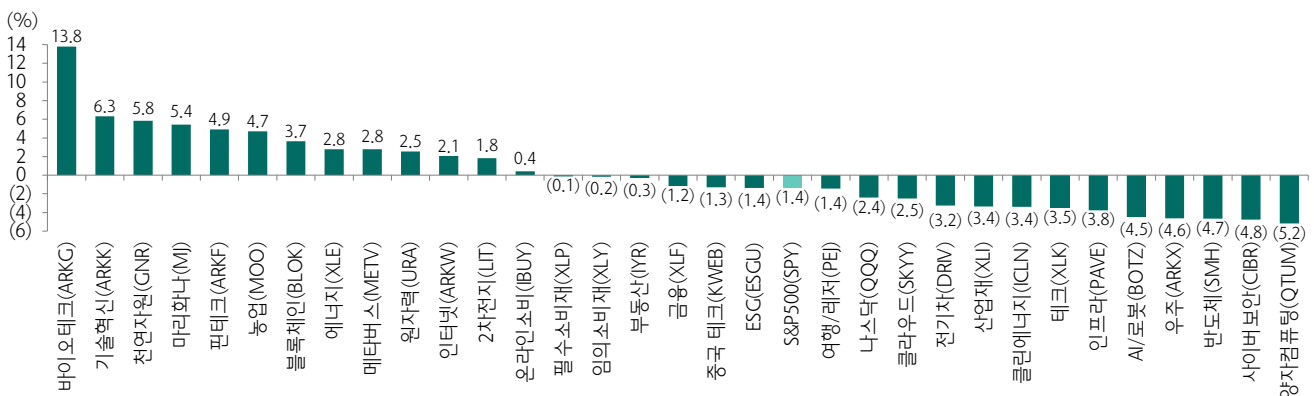
ETF 트렌드 & 포트폴리오: 변화를 살펴야 하는 시기

상황 변화의 시그널 가운데 확인해야 할 것이 늘어나는 시기. 자금 조달의 난이도 상승 우려: IGV/XLK, PAVE, KBWB, SPHQ, DIVO 등 활용

- 글로벌 수급:** 선진국을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ETF 시장의 확장 기조가 유지되었다. 글로벌 선진 주식형 ETF 시장과 북미지역 주식형 ETF 시장으로 각각 +111.3억달러, +352.8억달러의 자금이 집중되었고, 유럽 주식형 ETF시장에도 +13.1억달러가 순유입되었다. 신흥국 주식형 ETF 시장의 경우 아시아 주식형 ETF 시장에서 -20.3억달러가 빠져나가면서 지난 2주 사이에 총 -151.9억달러의 자금이 순유출되었다. 글로벌 채권형 ETF 시장에서는 북미 지역 채권형 ETF 시장으로 +126.5억달러가 유입되면서 선진국 채권형 ETF 시장에 총 +141.5억달러가 유입되었고, 신흥국 채권형 ETF 시장에서도 아시아 지역 중심의 매수세 유입이 재개되며 총 +26.7억달러가 순유입되었다.
- 종목별 수급:** 미국 ETF 시장의 종목별 자금 흐름을 살펴보면, 지수 중심의 대응 기조와 채권시장의 불안을 반영하는 모습들이 확인되었다. 주식형 ETF 종목군의 경우 S&P500 지수를 추종하는 SPY/VOO/SPYM으로 총 +142.1억달러, NASDAQ100 지수를 추종하는 QQQ/QQQM에 +38.6억달러, 미국증시 전반에 투자하는 VTI로 15.8억달러의 자금이 순유입되었다. 이외에도 대형주에 투자하는 AVLV와 USMC, 반도체 섹터 ETF인 SOXX, 미국 제외 글로벌 증시 ETF VXUS, 배당주 ETF인 SCHD 등이 자금 유입 상위 종목 리스트에 자리하였다.
- 채권형 ETF 종목군의 경우** SGOV(초단기국채), VCIT(중기회사채), TLT(장기국채), VGIT(중기국채), BND(US Total) 등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었으며, VCSH(단기회사채), LQD/CORP(IG회사채), HYG(HY회사채), SPSB(단기회사채) 등에서는 투자자금이 빠져나갔다. 달러화에 대한 신뢰 훼손 이슈가 재부각된 가운데 비트코인 현물 ETF인 IBIT/FBTC에 +7.2억달러, 금 현물 ETF인 GLD/GLDM/IAU/AUM로 총 +28.5억달러 규모의 매수세가 순유입되었다.
- ETF 포트폴리오:** 유동성 환경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7월 PCE 지표와 Nvidia 실적, 잭슨홀 연례 미팅이 동시에 진행되며 미국 국채금리와 AI 투자사이클을 동시에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한 주이다.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잉여현금흐름 약화 및 자금조달 수요 증가 흐름 가운데,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장기 국채금리의 증시 영향력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다. 거리가 멀어 보이는 상기 이벤트들의 상관관계가 더욱 높아질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변동성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기업실적 관점에서는** 역시 26일 미국 장 마감 후에 확인되는 Nvidia의 분기 실적이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되겠다. 시장에서는 분기 매출이 전년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 920억달러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1분기 매출 816억달러, 데이터센터 매출 752억달러에 이어 AI 가속기 수요가 얼마나 빠르게 증가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금번 실적 역시 매출과 EPS의 컨센서스 상회 여부보다는 Blackwell 및 GB200/GB300 수요와 공급 상황, 차세대 Vera Rubin 전환 과정에서의 매출 공백 가능성 여부 및 일정, 중국 H200 판매와 관련한 가이드라인 반영 여부,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에 따른 중장기 수요 전망, 원가 상승 가운데 Gross Margin 흐름 등의 세부 내용들을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 Nvidia 뿐만 아니라 Salesforce, CrowdStrike, Okta, Synopsys 등의 실적도** 같은 날(26일 미국증시 마감 후) 발표될 예정이며, 다음 날 장 마감 후에는 Marvell과 IREN의 실적도 확인된다. AI 소프트웨어 투자 및 사이버보안 부문의 수요부터 Custom AI ASIC 및 네트워크 반도체 수요를 확인하는 지표가 될 전망이다.

- 경제지표의 경우 오는 수요일(8/26)에 발표되는 7월 PCE 물가지수가 가장 중요하다. 현재 컨센서스 기준으로 Headline PCE 물가는 전년대비 상승률이 6월의 +3.7%에서 +3.6%로 소폭 낮아지는 반면 전월대비 상승률은 -0.1%에서 +0.1%로 상승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Core PCE 물가는 전년대비 상승률이 +3.3% 수준에서 유지, 전월대비 상승률만 지난달의 +0.1%에서 +0.2%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에너지 가격과 개별기업들의 가격 전가, 관세 영향 등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대 이란 경제 제재 조치가 원유 가격 등으로 연결될 경우 선제적으로 경계감이 재부각될 수도 있다. PCE 물가와 함께 확인되는 2분기 GDP 수정치는 잠정치에서의 반등 흐름을 경계해야 한다.
- 주 후반에는 8월 27~29일 열리는 잭슨홀 심포지움으로 시장의 시선이 집중될 전망이다. 특히 금요일(8/28)의 케빈 워시 의장 연설은 정책 방향과 향후 판단의 위치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지난 7월 FOMC 의사록 내용의 경우 기자회견에서 확인되었던 케빈 워시 의장의 스탠스와는 달리,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추가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워시 의장이 기존 연준보다 Forward Guidance를 축소하는 방향을 강조하면서 시장의 경계감도 높아져 있는데, 기자회견과 의사록의 괴리처럼 워시 의장의 발언 내용만 듣게 되는 과정에서 또 다시 반복된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 이번 잭슨홀 심포지움에서는 당장 9월 정책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는지 여부보다 최근 장기금리 급등에 대한 평가, 3%대 Core PCE에 대한 판단, 유가와 관세발 인플레이션의 지속 가능성, 추가 금리인상의 필요성, Fed의 정책 커뮤니케이션과 금융시장 안정에 대한 시각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미 재무부의 정책 역시 조심스럽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9월에는 계절적으로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도 증가한다. 급격한 펀더멘털 약화 흐름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금리에 반영되는 정책과 수급 불확실성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 산업 관점에서 AI의 성장성에 대한 시각은 유효하다. 다만 경쟁 구도의 변화 가능성과 사용자들의 비용 효율화 추구 현상 등을 인지하며 형성되는 의구심, 불리해지고 있는 자금조달 환경의 상황 등을 복합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시기이다. ETF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관점에서는 여전히 변동성을 염두에 둔 전략의 선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 조정 후에 진행되는 단기 반등 기대와 제한적 흐름 가운데, 등락이 반복되고 있는 반도체 섹터(SMH/SOXX/DRAM)의 상황을 고려하여 대표 지수형 ETF들(QQQ/VOO/RSP)이나 기술주 전반에 투자하는 ETF들(IGV/XLK/VGT), Hyperscalers 기업들이 포함된 MACS, 액티브 운용을 통해 업종 선택까지 유연한 전략 대응이 가능한 CHAT/BAI(AI 액티브) 등을 활용할 수 있겠다. 투자 중심의 경제 사이클과 관세 및 리쇼어링 정책의 모멘텀이 유효한 PAVE(인프라)와 XLI(산업재)에 대한 관심을 이어가는 한편, 자금조달의 수요 증가 국면에서 대형 IB 구성의 KBWB와 퀄리티 ETF 종목군의 QUAL/SPHQ/QGRO 등의 편입도 생각해 볼만한 시점이다. 국면의 특성상 커버드콜 액티브 ETF인 DIVO/QDVO 역시 포트폴리오 구성 관점에서 적절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주요 테마형, 섹터 ETF들의 주간 수익률



주: 2026.8.17~8.21 기준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2026년 8월 24일 | Global Asset Research

Global ETF

Compliance Notice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New K-ETF

삼전닉스 채권혼합: 플러스, 미국채혼합

신규 상장 ETF(8/25): ACE 삼성전자SK하이닉스플러스 채권혼합50

TIGER 삼성전자SK하이닉스 미국채혼합50

ACE 삼성전자SK하이닉스플러스 채권혼합50: 한국의 대표 기업들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심의 주식 포트폴리오와 국고통안채로 구성된 채권 포트폴리오를 각각 50%의 비중으로 조합하는 채권혼합형 ETF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식을 각각 20%씩 편입하고, 시반도체와 관련된 1개 종목을 10% 비중으로 추가하여 주식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외 추가 종목의 경우 KAP700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시가총액 5천억원 이상(3개월 평균 시총)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시반도체’ 키워드를 활용한 LLM 스코어링 작업을 거쳐, 점수가 가장 높은 종목을 선정한다. 상장일(8/25) 기준의 추가 종목은 삼성전기이며, 이에 따라 ‘ACE ACE 삼성전자SK하이닉스플러스 채권혼합50 ETF’의 주식 포트폴리오는 삼성전자 20%, SK하이닉스 20%, 삼성전기 10%의 비중으로 구성된다.

채권 포지션의 경우 ‘KAP 단기 국고통안채 총수익지수’의 포트폴리오를 활용한다. 발행잔액이 5천억원 이상인 잔존만기 1개월 초과 ~ 2년 이하의 국고채와 잔존만기 1년 초과 ~ 2년 이하의 통안채를 편입 대상으로 한다. 이 가운데 1년 이하 채권들을 95%, 1년 초과 ~ 2년 이하의 채권들을 5%의 비중으로 조합(+시가총액 가중방식)하여 상대적으로 금리 변화의 가격 영향이 제한되는 포트폴리오를 추구한다.

주식 포트폴리오는 연 4회(3월/6월/9월/12월의 세번째 주 첫 영업일)에 걸쳐, 채권 포트폴리오는 연 12회(매월 마지막 영업일)에 걸쳐 리밸런싱이 진행된다. 채권혼합형 ETF로 분류되기 때문에, 퇴직연금 계좌에서 100% 비중까지 편입 가능한 ETF 종목이 되겠다. 0.07%의 총 보수가 적용되는 채권혼합형 패시브 ETF이다.

TIGER 삼성전자SK하이닉스 미국채혼합50: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식 포트폴리오와 미국 단기국채로 구성된 채권 포트폴리오를 조합하는 채권혼합형 ETF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식을 각각 25%씩 편입하며, 주식과 채권을 50대 50 비중으로 조합함으로써 퇴직연금 계좌에서 100% 비중까지 투자할 수 있는 ETF 종목이 되겠다.

주식 포지션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2개 종목으로 고정되며, 두 종목의 5 대 5 비중과 주식 포트폴리오와 채권 포트폴리오 간의 5 대 5 비중은 매일 일간 단위로 조정 작업이 이루어진다. 채권 포트폴리오의 경우 미국 국채 T-Note(발행만기 2년/3년/5년/7년/10년) 종목들 가운데 잔존만기 1년 이하인 채권들 중 만기가 긴 순서로 20개 종목을 최종 편입대상으로 선정한다. 채권 포트폴리오는 매일 첫 영업일에 리밸런싱 작업이 진행된다. 총 보수는 0.15%가 적용되는 채권혼합형 ETF 종목이다.



Global ETF 박승진 sj81.park@hanafn.com
RA 신민건 mingun.shin@hanafn.com

도표 1. ACE 삼성전자SK하이닉스플러스채권혼합50, TIGER 삼성전자SK하이닉스미국채혼합50 ETF의 종목 개요

ETF명	ACE 삼성전자SK하이닉스플러스채권혼합50	TIGER삼성전자SK하이닉스미국채혼합50
상장일	2026년 8월 25일 화요일	2026년 8월 25일 화요일
기초지수	KAP 삼성전자SK하이닉스플러스채권혼합50지수	KRX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미국채 혼합지수
복제방법	실물(패시브)	실물(패시브)
1좌당 가격	10,000원	10,000원
총 보수	0.07%	0.15%
구성종목 수	- 주식: 3종목 - 채권: 24종목	- 주식: 2종목 - 채권: 20종목
비중결정방식	- 주식(50%): 삼성전자·SK하이닉스 각 40%, SI 반도체 키워드 종목 20% - 채권(50%): 단기채 시가총액 가중방식 (1년이하 95%, 1~2년 5%)	- 주식(50%): 삼성전자 SK하이닉스 1:1비율 - 채권(50%): 개별 종목 액면가 동일 비중방식
정기변경	- 주식: 연 4회(3, 6, 9, 12월 셋째 주 첫 영업일) - 채권: 연 12회 (매월 마지막 영업일)	- 주식(50%): 일별 리밸런싱 - 채권(50%): 매월 첫 영업일

자료: KRX, 하나증권

2026년 8월 24일 | Global Asset Research

Global ETF

Compliance Notice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자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New K-ETF

TDF 2065 액티브 적격

신규 상장 ETF(8/25)

- KODEX 코리아 TDF 2065 액티브 적격

KODEX 코리아 TDF 2065 액티브 적격: 2065년을 은퇴 목표 시점으로 설정하여 위험자산인 주식과 안전자산인 채권 포지션의 상대 비중을 조절해 나가는 적격 TDF ETF이다. 목표 시점에 맞춰 주식과 채권 비중을 조절해주는 TDF(Target Date Fund) 상품으로, 퇴직연금 계좌에서 100% 비중까지 투자 가능한 '적격' 인정 ETF 종목이다.

ETF 종목명의 '코리아'를 통해 유추해볼 수 있는 것처럼 국내 주식과 국내 채권으로 포트폴리오가 구성되며, 은퇴 목표 시기를 2065년에 설정하고 단계별로 주식과 채권 포지션이 전환 속도가 변경되는 글라이드 패스(비중 조절 작업) 형태로 운용된다.

투자자의 은퇴 목표시점에 맞춰 주식과 채권 등 자산 비중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글라이드 패스(Glide Path) 방식은 은퇴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초기에 장기적인 자산 증식을 위해 주식을 중심으로 위험자산의 비중을 높게 가져가고, 목표 은퇴시점이 가까워지면 주식 비중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대신 채권과 현금성 자산 등 상대적으로 안정한 자산의 비중을 확대한다. 비슷한 목표 연도의 TDF ETF라도 글라이드 패스의 기울기, 배분 및 구성 기준에 따라 수익률과 변동성이 달라질 수 있는데, 'KODEX 코리아 TDF 2065 액티브 적격 ETF'는 글라이드 패스를 3단계로 나누어 비중 조절의 속도를 조절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상장 이후 20년은 자산축적기(2046년까지)로 설정하여 주식 비중을 높게 가져가는 전략을 활용한다. 최초 80%의 비중으로 주식 포지션을 구축한 후 매년 0.3% 수준만 채권 투자로 전환한다. 이후 은퇴 이전 20년의 시기(2065년까지)는 자산전환기로 설정하고 매년 2.0%의 속도로 주식 비중을 채권으로 전환하고, 목표 은퇴 시점(2066년~) 이후의 시기는 인출기 기간으로 설정하여 매년 0.5%씩 채권 비중을 높여 나가는 한편, 주식 비중이 최저 한도인 20% 수준에 도달하면 해당 비중을 유지하는 형태로 운용을 이어간다.

편입 종목의 선정 과정에서는 포트폴리오를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과를 추구하는 'Core' 자산과 추가 수익을 추구하는 'Satellite' 자산의 조합을 통해 운용하는 Core-Satellite 전략 방식이 적용된다. 대표지수와 저변동성 포트폴리오 등으로 구성된 코어 주식 포지션을 구축하여 시장 전체를 추종하는 가운데, 섹터 주식과 테마 주식을 함께 편입하여 추가 수익을 추구한다. 채권 포트폴리오의 경우 잔존만기가 1년 이상 3년 이하인 국고채와 통안채, 재정증권, 외평채 등을 편입 대상으로 한다.

주식 포트폴리오는 연 2회(6월/12월 선물옵션 만기일 익주 첫 영업일)에 걸쳐, 채권 포트폴리오는 연 12회(매월 첫 영업일)에 걸쳐 정기 리밸런싱이 진행된다. 0.27%의 총 보수가 적용되는 TDF 액티브 ETF이다



Global ETF 박승진 sj81.park@hanafn.com
RA 신민건 mingun.shin@hanafn.com

도표 1. KODEX 코리아 TDF 2065 액티브 적격 ETF의 종목 개요

ETF명	KODEX코리아TDF2065액티브 적격
상장일	2026년 8월 25일 화요일
비교지수	FnGuide 코리아 TDF 2065 지수
복제방법	실물(액티브)
1좌당 가격	10,000원
총 보수	0.27%
구성종목 수	- 주식 : 802종목 - 채권 : 23종목
비중결정방식	- 하위 주식·채권 지수 내 편입 종목: 시가총액 가중 방식 - 자산배분 비중(TDF): Glide Path에 따라 연 4회 분기별 조정, 분기 내 매일 동일 비중 유지
정기변경	- 주식: 연 2회(6·12월 선물옵션 만기일 익주 첫 영업일) - 채권: 연 12회(매월 첫 영업일) 또는 편입 종목 수 5종목 미만 발생 시

자료: KRX, 하나증권

2026년 8월 25일 | Global Asset Research

Equity

DIN (Doo It Now)

코스피 방향을 가를 3가지 관문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삼성전자의 대규모 현금환원은 지수의 하단을 지지하지만, 실행 속도와 외국인 수급에서는 SK하이닉스가 더 앞서 있다. 엔비디아는 높아진 실적 기대를 넘어 HBM4 수율, 공급계약, 2027년 물량까지 증명해야 한국 반도체의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결국 현금 바닥을 만들고 이익은 그 바닥을 지키지만, 시장의 상단은 미국 장기금리가 결정한다.

한국 주식시장은 세 가지 중요한 관문을 앞두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주환원, 엔비디아 실적, 그리고 잭슨홀 이후 미국 금리다. 세 변수는 서로 달라 보이지만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모인다. 8월에 시작된 코스피 반동이 더 이어질 수 있는냐.

삼성전자는 2026년 주주환원 규모를 90~110조원으로 제시했다. 종전 최대였던 2020년 20.3조원의 약 5배다. 3분기에는 정규배당을 포함해 약 30조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하지만, 나머지 60~80조원의 배당·자사주 매입 및 소각 조합은 2027년 1월 확정한다. 별도로 승인한 15조원의 자사주 매입도 임직원 보상 목적이다. 총액은 압도적이지만 유통주식 감소의 시점은 아직 열려 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8월 20일부터 11월 19일까지 40조원, 약 2,407만주를 매입해 전량 소각한다. 발행주식의 약 3.3%다. 시장이 규모와 함께 속도를 묻는 이유다. 더구나 삼성전자 발표는 21일 정규장 종료 후 나왔다. 당일 상승을 발표 이후의 평가로 볼 수 없고, 발표 뒤 주가 하락을 근거로 투심 약화를 단정할 수도 없다. 첫 검증은 차주 초반이다. 2분기 말 삼성전자 보통주의 외국인 비중이 46%인 만큼 외국인 순매수 향방이 중요하다. 1,380원대 달러-원 환율, 11개월래 가장 강해진 원화는 외국인 수급에 긍정적이다.

다음 관문은 엔비디아다. 27일 오전 6시(한국시간) 2027회계연도 2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매출 가이드는 910억달러±2%, 비GAAP 매출총이익률은 75.0%±0.5%p다. 시장은 매출 약 919억달러와 조정 EPS 약 2.08달러를 예상하며, 3분기 매출 눈높이는 1,030억달러 안팎까지 올라와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단순한 예상치 상회라 아니라 다음 숫자의 확장이다. Rubin GPU가 제시한 최대 288GB HBM4와 초당 22TB의 대역폭이 실제 수율, 공급계약, 2027년 물량으로 연결되는지가 한국 반도체의 핵심 변수다. 과거 엔비디아 실적 뒤 코스피가 일주일 가량 하락했다는 통계도 방향의 법칙으로 쓰기 어렵다. 2024년 8월에는 다음 날 1.02% 하락했지만, 2026년 5월에는 호실적과 국내 재료가 겹치며 7.9% 상승했다. 실적보다 금리, 사전 포지션과 국내 수급이 결과를 갈랐다. 과거 통계는 매도 신호가 아니라 변동성 경보다.

그 변동성의 중심에는 결국 금리가 있다.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잭슨홀 미팅은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첫 잭슨홀이다. 시장이 궁금한 것은 복잡하지 않다. 금리를 더 낮출 수 있는 새로운 논리가 등장하느냐. 7월 FOMC에서 연준은 기준금리를 3.50~3.75%로 동결했다. 코로나 이후 제로금리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세 명의 위원이 25bp



국내외 주식시장 김두연 kimdooun@hanafn.com
주식시장 RA 최욱 wookchoi@hanafn.com

인상을 주장했다는 점은 연준 내부에서도 물가에 대한 경계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워시 의장은 연준이 장기국채를 대규모로 사들이거나 재정 문제에 직접 개입하는 데에는 거리를 두고 있다. 따라서 잭슨홀에서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새로운 논리가 나온다면 연준의 직접적인 국채 매입보다는 금융혁신과 민간자금 이동에서 찾을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인 것이 스테이블코인이다. 스테이블코인이 커지면 발행사는 받은 달러를 준비자산으로 보유해야 하고, 상당 부분을 미국 단기국채에 투자하게 된다. 자연스럽게 단기국채 수요가 늘고 단기금리에는 하락 압력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스테이블코인이 1조달러 늘어난다고 시장에 새로운 돈 1조달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은행예금 1조달러가 스테이블코인으로 이동한다면 돈이 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은행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자리를 옮긴 것이다. 캔자스시티 연은의 자산구성을 적용하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국채 매입은 약 5,000억달러 늘어나는 반면 은행의 국채 보유는 약 2,000억달러, 대출은 약 5,000억달러 줄어들 수 있다. 결과적으로 순국채 수요는 약 3,000억달러 증가한다. 1조달러의 스테이블코인이 생겨도 순수하게 늘어나는 국채 수요는 약 3,000억달러라는 의미다. 따라서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히 '1조달러의 유동성 공급'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은행 대출로 흘러갈 돈 일부가 단기국채로 이동하는 성격에 가깝다.

금리가 얼마나 내려갈지도 단순 계산하기 어렵다. BIS 연구에서는 35억달러의 스테이블코인 자금 유입이 미국 3개월물 국채 금리를 당일 약 0.71bp, 열흘 이내 약 4bp, 13일 후 최대 약 5bp 낮추는 것으로 추정했다. 1bp는 금리 0.01%포인트다. 따라서 5bp 하락은 예를 들어 4.00% 금리가 약 3.95%로 내려가는 정도다.

중요한 것은 이런 효과가 주로 단기채에 나타났다는 점이다. 10년물이나 30년물 같은 장기금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일부 구조모형은 중장기적으로 최대 40bp, 즉 0.4%포인트 정도의 하락 가능성을 제시하지만 이는 스테이블코인이 광범위하게 보급되고 준비자산 상당 부분이 미국 국채에 투자된다는 강한 가정이 필요하다.

미 재무부의 국채 바이백도 마찬가지다. 10~30년물 국채의 회당 바이백 상한을 20억달러에서 최소 40억달러로 두 배 이상 확대한 이후 30년물 금리는 한때 약 10bp 하락했다. 그러나 이후 상당 부분 다시 올랐다. 미국 정부부채가 40조달러를 넘어선 상황에서 수십억달러 규모의 바이백은 시장의 거래를 원활하게 만드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만 재정문제 자체를 해결하기에는 너무 작다. 바이백은 국채시장의 '배관'을 고치는 조치이지, 재정의 '누수'를 막는 해법은 아니다.

하나증권은 7월 급락이후, 루트형(✓) 반등을 예상하고 있다([DIN0810 참고](#)). 8월 코스피지수는 저점대비 31.4% 상승했다. 삼성전자의 대규모 현금환원은 시장의 하단을 받쳐줄 가능성이 높다. 반면 엔비디아의 높은 실적 기대와 미국 장기금리의 불안은 시장의 상단을 쉽게 열어주지 않을 수 있다. 지금은 지수를 무작정 따라가기보다 종목을 골라야 할 때다. 외국인이 다시 사들이는 대형주, HBM4 양산과 공급계약이 구체화되는 반도체 기업, 그리고 주주환원을 말미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는 기업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현금은 시장의 바닥을 만들고, 이익은 그 바닥을 지킨다. 시장이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결국 금리가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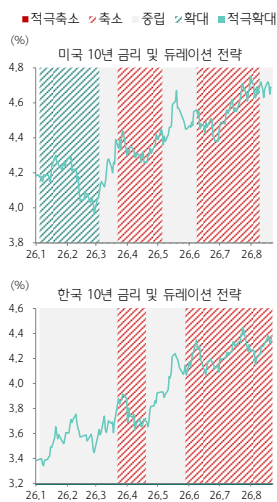
2026년 8월 24일 | Global Macro Strategy

Fixed Income

국채 투자 의견

	축소	중립	확대
미국			
한국			

주: 8/10 기준. ●는 직전(6/8) 전망



주간 하나채권

[8월 4주] 바이백 효과는 레벨보다 스프레드에

- 재무부 바이백 확대는 초장기물 금리 안정에 기여. 당국의 금리 억제 의지가 재확인되며 ‘달러 약세 & 금/암호자산 급등’, 즉 debasement trade 인식을 강화
- 다만 규모 등을 고려 시 금리 방향성 바꾸기엔 역부족. 올해는 금리 판단 시 매크로에 가중치 높게 뉘야. 12월 인상 전망 유지하며 10년 금리 적정 레벨은 4.7%로 판단
- 한국은 금주 금통위에서 연속 인상 전망 및 듀레이션 ‘축소’ 전략 유지

Weekly Viewpoint

지난주 글로벌 국채 금리는 WTI 가격이 \$85를 넘어서고 견조한 펀더멘털이 확인되면서 오름세가 지속됐다(미/한 국채 10년 금리는 주간 4/6bp 상승). 지난 2주간 주간 하나채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미국-이란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미국 10년 BEI가 2.3%를 넘어섰다.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주간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예상을 하회하면서 실업 리스크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점이 확인됐다 [도표 5]. 8월 필라델피아/뉴욕 연은의 기업 심리지수도 각각 5, 4년래 최고치로 급등하면서 완전한 확장 국면을 나타냈다 [도표 7, 8].

‘달러 약세 & 금/암호자산 가격 급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재정 건전성 악화와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상존하는 가운데 당국이 금리를 인위적으로 누르는 과정에서, 화폐가치 하락에 베틀하는 ‘debasement trade’가 반영된 결과로 판단한다. 이러한 인식을 강화시킨 계기는 재무부의 국채 바이백 확대였다. 금리 상승 압력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당국이 금리 상승을 어디까지 용인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직면한 가운데, 바이백 확대로 정부의 국채금리 안정 의지를 재확인했기 때문이다.

재무부는 초장기(10~20년, 20~30년) 국채 바이백 규모를 회당 ‘최대 \$2bn’에서 ‘최소 \$4bn’으로 확대했다. 20, 30년 국채 발행액 대비 비중으로 따지면 ‘최대 14.4%’에서 ‘최소 28.8%’로 늘어난 셈이다 [도표 1]. 약 2년간의 바이백 결과를 종합하면 10년 이하 구간 대비 10년 초과 구간의 수요가 약 3~5배 강했다. 이번 확대는 초장기물 수급 안정 기대를 높였고, 실제로 10년과 달리 30년 금리는 주간 상승 폭이 1bp에 그쳤다(한국 30년은 +5bp).

다만 중요한 것은 수단별로 그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바이백 규모 확대와 이전에 발표된 FIMA 활용 독려, coupon(이표채) 발행액 유지 등은 기존의 도구들을 활용하여 장기금리 안정을 유도하는 방법들이다. 국채 순발행에는 변화가 없고, 새로운 매수 수요를 창출하지도 않는다. 이들은 금리 충격을 완충시킬 수는 있으나 금리의 방향성 자체를 바꾸려면 상당한 규모로 실행돼야 한다. 이번 바이백 조치는 규모면에서 금리 방향성을 바꾸기보다 초장기 스프레드 축소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트럼프는 ‘채권시장에 군사적 개입’을 언급했는데 진의 파악은 어렵다. 다만 단순히 전쟁에서 승리를 통해 유가 안정을 유도하는 것 외에도 무력/안보를 레버리지로 삼아 국채 보유/매입을 강요하는 정책도 포함될 수 있다. 트럼프 임기 초기에 외국인(정부)가 보유한 국채를 영구채로 스왑하는 방안들이 거론된 적도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극단적인 형태로 부작용(인플레이션, 달러 약세 등)이 클 수밖에 없다. 앞으로 금리를 낮추기 위한 당국의 정책들은 꾸준히 발표되겠으나, 극단적인 수단을 활용할 환경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완만한 도구로 금리의 방향성을 바꿀 수는 없고, 극단적인 도구는 현실성이 낮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금리 방향을 판단할 때는 **정책 대응보다 매크로 변수에 더 큰 가중치**를 두어야 한다. 여전히 연내 인상을 전망하며, 시장이 2회 인상을 반영해 형성된 10년 금리 4.7%를 적정 레벨로 판단한다(미국 국채 투자 의견 ‘중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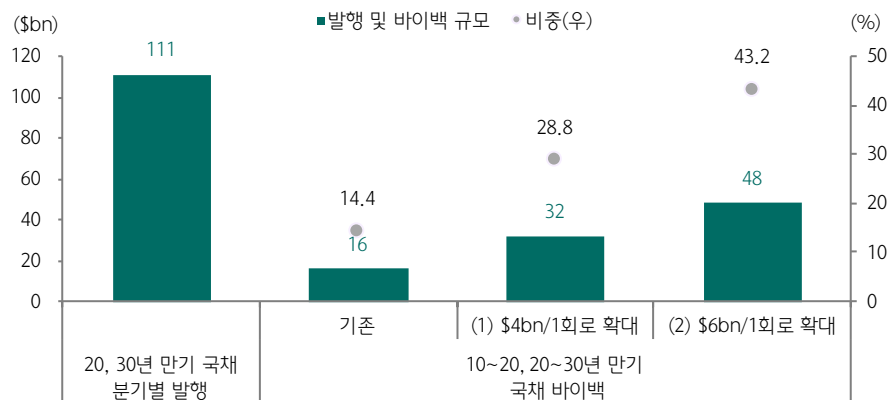
금융시장도 미국의 올해 인상 폭이 1~2회이 그치더라도 그 이후에 추가 인상이 단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표 29]. 케빈 워시도 당국의 금리 안정 의지에 보조를 맞추어 동결 기조를 최대한 이어갈 수 있으나, 결국 FOMC의 의사결정은 펀더멘탈에 수렴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8월 첫 20일 수출 증가율이 전년비 56% 증가(반도체 +198.8%)하면서 견조한 성장세가 또 한번 확인됐다. 금주 금통위에서 연속 인상, 그리고 11월, 내년 2월 추가 인상을 전망한다(상세 내용은 ‘[8/20, \[8월 금통위 프리뷰\] 인상을 늦출 이유가 없다](#)’ 참고). 국고 3, 10년 금리는 각각 4.0%, 4.5%를 상회해야 어깨 레벨에 가깝다고 판단한다. 한국 국채에 대해 듀레이션 ‘축소’ 의견을 유지한다.

도표 1. 미국 국채 초장기물 발행과 바이백 규모 비교

기존 바이백 규모는 20, 30년물
총 발행의 14% 수준

이를 최소 두 배 이상으로 증액



자료: 미국 재무부, 하나증권

Fixed Income

Compliance Notice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2026년 8월 24일 | Global Fixed Income

해외채권

[브라질] 첫 인하 직전보다 높아진 장기금리

- 3월부터 BCB는 총 100bp 인하 단행했음에도 10년 금리는 첫 인하 직전보다 높음
- 브라질 장기금리 상승 요인은 향후 기준금리에 대한 기대라기보다 위험과 불확실성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 요구에 있음
- 10월 선거 전까지는 달러 표시 채권과 단기 헤알화 표시 채권 투자 전략 유지. 최소한 3분기까지는 헤알화 투자 의견 '중립' 유지

총 100bp 인하에도 장기 금리 하락은 제한적

브라질 중앙은행(BCB)은 올해 3월부터 네 차례 연속 25bp 인하를 단행하며 기준금리를 14%까지 낮췄다. 그러나 총 100bp의 인하에도 국채 금리는 오히려 첫 인하 직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년물 금리는 약 36bp, 10년물 금리는 약 69bp 상승했다[도표 1]. 즉, 현재 브라질 채권시장은 단순히 기준금리의 절대 수준이나 향후 통화정책 경로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국면에 진입했다.

브라질 장기금리는 크게 향후 예상되는 단기금리, 기간 프리미엄(Term Premium), 국채 위험 프리미엄(Sovereign Risk Premium)으로 나누어 볼 필요가 있다. IMF의 금리기간구조 모형에 따르면 브라질의 높은 장기금리가 향후 기준금리에 대한 높은 기대만으로 설명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시장은 기준금리가 2030년경 약 9%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10년물 금리는 보다 높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추정된다[도표 2].

이는 현재 브라질 장기금리의 핵심적인 상승 요인이 향후 기준금리에 대한 기대라기보다 위험과 불확실성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 요구에 상당 부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장기금리가 높은 이유는 예상 단기금리 자체가 높기 때문이라기보다 만기가 길어질수록 위험 프리미엄과 기간 프리미엄이 높아지기 때문이다[도표 3]. 현재 수준의 국채 위험 프리미엄이 유지될 경우 시장이 인식하는 브라질의 중기 정부 자금조달 비용은 약 10.5~11.5%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향후 브라질 금리 인하 사이클을 평가할 때는 '기준금리가 얼마나 내려갈 것인가'보다 기준금리가 내려간 이후에도 '장기금리에 얼마나 많은 프리미엄이 남아 있을 것인가'가 더욱 중요하다. 기준금리가 9% 수준까지 하락하더라도 정부가 장기자금을 10% 이상의 금리로 조달해야 한다면 높은 정부부채를 보유한 브라질의 재정 부담은 쉽게 완화되기 어렵다. 반대로 재정 신뢰도가 개선되면서 위험 프리미엄과 기간 프리미엄이 축소된다면 기준금리 하락 이상의 장기금리 하락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해외채권 Analyst 허성우
deanheo@hanafn.com

2026년 8월 25일 | 기업분석

Not Rated

목표주가(12M) N/A
현재주가(8.24) 5,530원

Key Data

KOSDAQ 지수 (pt)	813.33
52주 최고/최저(원)	9,250/4,835
시가총액(십억원)	154.0
시가총액비중(%)	0.03
발행주식수(천주)	27,841.1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127.0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0.7
외국인지분율(%)	45.13
주요주주 지분율(%)	
SLS SRL 외 3인	39.52
브이아이피자산운용	13.17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N/A	N/A
영업이익(십억원)	N/A	N/A
순이익(십억원)	N/A	N/A
EPS(원)	N/A	N/A
BPS(원)	N/A	N/A

Stock Price**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2	2023	2024	2025
매출액	561	680	736	786
영업이익	19	34	38	45
세전이익	11	38	43	54
순이익	9	31	35	44
EPS	336	1,097	1,261	1,577
증감율	68.0	226.5	14.9	25.1
PER	7.1	3.3	3.5	5.2
PBR	0.5	0.6	0.6	0.9
EV/EBITDA	3.5	2.9	2.8	3.8
ROE	6.5	17.7	16.4	16.9
BPS	5,157	6,188	7,705	9,358
DPS	80	120	150	200



Analyst 송선재 sunjae.song@hanafn.com
RA 박태웅 taewoongpark@hanafn.com

코리아에프티 (123410)**P/E 3.7배에 불과. 자기주식 취득까지 진행 중****2Q26 Review: 영업이익률 6.6% 기록**

코리아에프티의 2분기 매출액/영업이익은 +7%/-9% (YoY) 변동한 2,170억원/144억원(영업이익률 6.6%, -1.2%p (YoY))을 기록했다. 캐니스터/필러넷/의장부품 매출액이 각각 +2%/-9%/+20% (YoY) 변동했다. 1월 신규 연결된 PlasCoTech의 의장부품 내 편입 효과를 제외하면 외형은 고객사들의 생산부진으로 동반 정체되었다. 캐니스터 매출액은 ICE용 감소로 전체 물량은 감소했지만, HEV/PHEV 등 친환경차 증가로 인한 ASP 효과로 증가했다(1H26 기준 친환경차용 캐니스터 +42% (YoY), 비중 25.9%(+7.5%p (YoY)). 2분기 매출총이익률은 0.5%p (YoY) 상승한 17.1%로 분기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영업이익률은 1.2%p (YoY) 하락한 6.6%를 기록했다. 중국 법인 매출액이 고객사들 생산 축소로 감소하면서 적자 전환했고, 국내 연구동 증축에 따른 건설비용이 반영되었으며, 전년 상반기 발생했던 금형판매 수익이 금년에는 하반기에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결과로 상반기 누적 매출액/영업이익은 +7%/-1% (YoY) 변동한 4,276억원/270억원(영업이익률 6.3%, -0.6%p (YoY))로 마감되었다.

하반기 매출액/영업이익 7%/28% (YoY) 증가할 전망

코리아에프티의 2026년 매출액/영업이익은 7%/10% 증가한 8,436억원/501억원(영업이익률 5.9%, +0.1%p (YoY))으로 예상된다. 하반기만의 매출액/영업이익은 7%/28% 증가한 4,160억원/231억원(영업이익률 5.6%, +0.9%p (YoY))으로 전망한다. 외형 확대의 이유는 PlasCoTech의 연결 편입 효과가 내년 1월까지 지속되는 가운데, 고객사들의 HEV 모델 증가로 친환경차용 캐니스터의 공급이 꾸준히 늘어나기 때문이다. 영업이익/영업이익률이 개선되는 이유는 PlasCoTech의 연결 편입과 함께 전년 4분기 발생했던 일회성 단가 정산과 성과급 등이 금년 축소되고, 상반기로부터 지연 반영되는 금형판매 수익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2026년 연간 세전이익/순이익 531억원/418억원, EPS는 1,501원으로 전망한다.

현재 P/E 3.7배이고, 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이 진행되면 P/E 3.4배까지 하락

코리아에프티는 지난 5월 1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을 공시했다. 5월 26일부터 11월 25일까지이며, 계획 취득 수량은 167.8만주로 발행주식의 6%에 해당된다. 2분기 35.3만 주가 매수되었고, 11월 말까지 잔여분이 매수될 것이다. 소각 여부 및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주주가치 제고라는 목적상 소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기대한다. 주당 배당금은 2025년의 200원(vs. 2023년/2024년 120원/150원에서 상향)이 유지된다면 기대 배당수익률은 3.6%이다. 주가는 52주 최고가 대비 43% 하락해 있는데, 2026년 예상 실적 기준 P/E 3.7배, P/B 0.5배에 불과하다. 자기주식 소각이 이뤄질 경우(EPS 6% 상승 효과) P/E는 3.4배까지 하락할 수 있다. 2026년 성장성이 둔화된 것이 아쉽지만, 의장부품과 친환경차용 캐니스터를 기반으로 꾸준한 성장성/수익성을 시현하고 있고, 미국 내 증설로 현지 수요증가에 대응력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현 주가는 저평가된 상태라는 판단이다.

2026년 08월 25일 | 기업분석_스몰캡_Report

Not Rated

현재주가(8.24)

58,700원

Key Data

KOSPI 지수 (pt)	6,696.96
52주 최고/최저(원)	96,400/19,920
시가총액(억원)	8,877.5
시가총액비중(%)	0.02
발행주식수(천주)	15,123.5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210.7
60일 평균 거래대금(억원)	107.7
외국인지분율(%)	39.66
주요주주 지분율(%)	
TOYO ALUMINUM K. K. 외 10 인	32.88
Toyota Tsusho Corporation	9.92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억원)	3,728	4,660
영업이익(억원)	74	419
순이익(억원)	N/A	N/A
EPS(원)	265	2,493
BPS(원)	N/A	N/A

Stock Price**Financial Data**

(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2	2023	2024	2025
매출액	3,121	2,680	2,517	2,715
영업이익	226	38	(96)	(176)
세전이익	210	12	(103)	(218)
순이익	172	34	(94)	(249)
EPS	1,564	236	(636)	(1,692)
증감율	41.5	(84.9)	적전	적지
PER	26.5	450.8	(53.2)	(14.1)
PBR	3.3	6.1	2.0	1.6
EV/EBITDA	4.4	13.8	21.8	0.0
ROE	12.5	1.3	(3.8)	(11.4)
BPS	12,540	17,332	16,559	14,814
DPS	250	100	25	25



Analyst 한유건 hyg0619@hanafn.com
RA 윤채리 yooncherry@hanafn.com

삼아알미늄 (006110)**하반기, 수주와 스프레드 동시 확대****2Q26 Review: 흑자 전환에 성공**

삼아알미늄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929억원(YoY+37.8%, QoQ+37.8%), 영업이익 17억원(YoY 흑자전환, QoQ 흑자전환, OPM 1.9%)을 기록했다. 턴어라운드의 주요 요인은 26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출하되기 시작한 ESS향 제품 출하 확대에 기인한다. 이에 따라 알루미늄 Foil은 2분기에만 약 650억원(QoQ+59.2%)의 매출을 기록하며 전체 실적을 견인했다. 특히 알루미늄 Foil의 수출 물량은 YoY+67%, QoQ+97%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또한 올해 3월부터 알루미늄 LME 가격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2분기에 일부 품목을 대상으로 가격 전가가 이루어졌으며, 환율효과 또한 우호적으로 작용했다.

북미 데이터센터향 ESS 대규모 수주로 공장 가동률 급증

2분기 4월부터 본격화된 북미 데이터센터향 ESS 수주는 올해 동사의 펀더멘털 개선을 이끌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분기에 이어 3분기 수주 물량 역시 전분기 대비 확대되는 추세로, 동사의 3분기 수주잔고는 2분기 대비 약 1.5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폭발적인 ESS 수주 흐름은 공장 가동률 상승으로 직결되어, 25년 말 50% 수준에서 2Q26 기준 75%, 하반기에는 90% 풀캐파 가동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단일 제품의 대규모 수주 및 생산은 삼아알미늄의 제품 믹스 개선과 더불어 생산 효율성과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 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하반기 ASP 상승 및 스프레드 확대

최근 AI 수요의 급증에 따른 ESS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2분기부터 전방 고객사의 신규 수주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삼아알미늄이 제조하는 알루미늄박은 양극재의 집전체 역할을 하는 핵심 소재인 만큼, 확대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라인 추가 증설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으로 중국산 소재 사용이 제한됨에 따라 구조적 수혜로 작용하고 있다. 아울러 2분기 핵심 원재료인 알루미늄 Foil 수출용 ASP는 약 12%, 필름은 16% 증가했다. 알루미늄 LME 가격의 ASP 반영 시차를 감안하면, 하반기 마진 스프레드는 상반기 대비 큰 폭으로 확대되어 본격적인 실적 성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27년에는 창사 이래 최대 실적 달성 예상

동사의 하반기 원가율은 폭발적인 ESS향 신규 수주와 LME 가격 상승 분의 적극적인 판가반영에 힘입어 기존 96%에서 80% 후반 수준까지 확연히 낮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증설에 따른 일부 비용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동사의 26년 매출액은 전년 대비 45% 증가한 3,936억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할 전망이다. 27년에는 매출액 4,782억원, 영업이익 316억원을 달성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6년 8월 25일 | 기업분석_Earnings Review

BUY (유지)

목표주가(12M) 145,000원
현재주가(8.24) 92,500원

Key Data

KOSPI 지수 (pt)	6,696.96
52주 최고/최저(원)	112,500/71,500
시가총액(십억원)	634.6
시가총액비중(%)	0.01
발행주식수(천주)	6,860.0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11.5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1.0
외국인지분율(%)	6.88
주요주주 지분율(%)	
구자열 외 10인	45.46
신영자산운용	5.13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14,838.4	14,919.5
영업이익(십억원)	140.5	433.5
순이익(십억원)	245.0	250.7
EPS(원)	31,166	32,886
BPS(원)	383,431	417,694

Stock Price**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11,192.4	10,392.5	15,409.8	15,407.9
영업이익	223.4	324.1	165.1	448.7
세전이익	122.9	186.0	419.3	354.7
순이익	70.0	104.8	252.3	239.4
EPS	10,201	15,276	36,783	34,898
증감율	(67.17)	49.75	140.79	(5.12)
PER	6.73	5.45	2.51	2.65
PBR	0.24	0.28	0.28	0.25
EV/EBITDA	11.21	5.40	7.84	3.97
ROE	3.93	5.29	11.80	10.14
BPS	286,429	298,348	332,364	363,259
DPS	3,450	4,550	4,750	4,950



Analyst 유재선 jaeseon.yoo@hanafn.com
RA 박시현 boxhyun@hanafn.com

E1 (017940)**실적 정상화 확인****목표주가 145,000원, 투자의견 매수 유지**

E1 목표주가 145,000원과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한다. 국내 LPG 사업은 역마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해외 트레이딩 이익 증가로 양호한 실적을 달성했다. 세전이익 증가분 가운데 LPG 파생상품 관련 평가이익은 향후 시차를 두고 영업이익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증권 자회사 실적 개선과 발전 부문 성수기 진입 등으로 해당 영향은 충분히 만회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6년 기준 PER 2.5배, PBR 0.3배다.

2Q26 영업이익 1,179억원(YoY +17.1%) 기록

2분기 매출액은 4.4조원으로 전년대비 94.3% 증가했다. 금융업이 국내 증시 호조로 외형이 전년대비 393.3% 확대되며 외형 성장을 견인했다. 가스사업은 수출, 석화, 민수/산업체량 물량이 모두 전년대비 감소했지만 LPG 가격과 환율이 상승하며 매출이 성장했다. LPG 판매 실적은 민수용이 16.1% 감소, 석화용이 53.6% 감소, 수출이 22.2% 감소했다. 전력 부문은 SMP와 이용률이 전년대비 낮아지면서 외형이 둔화되었다. 영업이익은 1,179억원으로 전년대비 17.1% 증가했다. 가스 부문은 LPG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세를 활용한 해외 트레이딩 호조에도 국내 공급 LPG 마진 악화로 이익률이 일부 하락했다. 하지만 직전 분기 급격한 시황 변화로 기록한 대규모 적자로부터 회복된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전력은 외형 둔화와 SMP 약세로 이익률이 소폭 하락했다. 금융업은 증권 자회사 외형 성장으로 이익이 전년대비 119.9% 증가했다. 세전이익은 1분기에 발생한 LPG 파생상품 평가이익의 일부가 거래 손익으로 확정되면서 개선되었다.

환율 하락에도 민수용 요금 정상화 필요. 국내 전력시장 규제 영향 제한적일 전망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하회하고 있으나 LPG 도입 가격 대비 국내 판매가격은 아직도 역마진 구간에 머물러 있다. 향후 국내 판가 상승이 나타날 경우 실적 안정성이 제고될 수 있으나 아직 단기 정상화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석유화학 사업재편 대산 1호가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했다. 공정위가 5년간 주요 제품 공급 유지 의무를 부과했기 때문에 석화용 LPG 수요는 급격한 감소 일변도에서 벗어날 개연성이 존재한다. 발전 부문은 하반기 SMP 강세로 마진 상승이 예상된다. 전력 규제 변화로 도매가격 지역별 차등제 시행 시 발전소간 수익성 차별화가 나타날 예정이며 평택에너지엔파워는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해당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전망이다. 또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1GW LNG 열병합 발전소 입찰이 예정되어 있어 기존 부지를 활용한 사업 확장 가능성도 열려있다.

2026년 08월 25일 | 기업분석_Issue Comment

BUY (유지)

목표주가(12M) 660,000원(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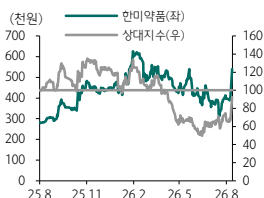
현재주가(8.24) 540,000원

Key Data

KOSPI 지수 (pt)	6,696.96
52주 최고/최저(원)	626,000/283,000
시가총액(십억원)	6,917.9
시가총액비중(%)	0.13
발행주식수(천주)	12,811.0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135.6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59.4
외국인지분율(%)	14.65
주요주주 지분율(%)	
한미사이언스 외 6 인	50.10
국민연금공단	9.87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1,681.7	1,769.0
영업이익(십억원)	297.9	288.1
순이익(십억원)	225.8	227.3
EPS(원)	16,062	16,211
BPS(원)	114,019	128,746

Stock Price**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1,495.5	1,547.5	1,716.5	1,869.1
영업이익	216.2	257.8	284.2	279.4
세전이익	171.3	213.5	285.2	305.0
순이익	121.3	169.6	197.6	214.6
EPS	9,470	13,235	15,426	16,751
증감율	(17.04)	39.76	16.55	8.59
PER	29.62	34.15	26.94	24.80
PBR	3.19	4.48	3.57	3.17
EV/EBITDA	12.93	17.38	14.52	14.51
ROE	11.89	14.53	14.63	13.88
BPS	88,067	100,935	116,497	131,266
DPS	1,250	2,000	2,000	2,000



Analyst 김선아 seon.a.kim@hanafn.com
RA 이희경 hk.lee@hanafn.com

한미약품 (128940)**초기 개발 물질을 선금금 8%, 3조원 규모로 계약****근육 보존 비만치료제 UCN2, 역시 Roche 자회사 Genentech으로 기술이전**

HM17321이 8/24일 Roche의 100% 자회사인 Genentech에 기술이전 되었다. 계약구조는 계약금 \$190M, 최대 마일스톤 \$2,115M (로열티 별도, %미공개)을 포함한다. 계약금 비율은 총 계약 규모의 8.2%로, 글로벌 평균이 6~7%임을 고려하면 HM17321의 개발 단계가 1상 중임에도 동사에 매우 우호적인 구조이다. 공시에 미국의 반독점개선편(HSR Act) 등의 행정 절차가 만족되면 효력이 발효된다는 문구가 있는데, 이는 통상적인 문구이고 HM17321은 First-in-Class이므로 기존 경쟁 제품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라는 문제될 가능성은 없다. HM17321은 CRF2 수용체를 선택적으로 활성화하는 펩타이드계 후보물질로, 주1회 SC 투여하여 체중 감소 및 근육 보존을 동시 달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Roche/Genentech은 Lilly와 Novo Nordisk를 잇는 비만 치료제 계보에 오를 것

Roche는 비만 치료제 관련하여 '25년 JPMHC에서 "특이적인 조합(Obesity: Potential to differentiate through unique combinations)"을 강조한 후, 당해 3월 Zealand pharma로부터 Amylin 유사체인 Petrelintide를 도입하였다. 그 후 Genentech이 계약 당사자이긴 하나 자회사를 통해 UCN2 유사체도 도입한 것이다. 올해 JPMHC에서 근육병 치료 후보물질인 emugrobart를 incretin과 병용으로 개발할 계획을 공개한 바 있으나, 올해 3월 효능 부족을 이유로 근육병에서도 개발을 중단하였다. 내년 1월 JPMHC의 Roche 파이프라인에는 emugrobart 자리에 HM17321이 기재될 전망이다. HM17321은 올해 상반기에 임상1상 SAD를 마쳤고 현재 MAD 파트를 진행 중이다.

목표주가 상향 660,000원, 적응증은 비만에 그치지 않을 것

목표주가는 '27년 EBITDA를 WACC 9.2%로 현재화한 후 목표 EV/EBITDA 16.1배로 계산한 영업가치 5조3,022억원에, HM17321 가치 1조158억원을 포함한 비영업가치 3조995억원을 적용하여 산정했다(사이언스 분배X). 올해 6월 ADA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HM17321은 당뇨, 비만, 심혈관뿐만 아니라 노화 가속으로 인한 근감소증 모델에서도 근력 증가 효과도 보인 바 있다. 개발 초기 파이프라인임에도 계약의 규모가 \$2.3B 이상(약3.2조원, 1,380원/달러)인 이유는 병용 가치가 높고, 당뇨/비만을 넘어 근감소증에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연초에 동사는 3Q26 경 SAD 데이터 공개를 계획했으나, 이 계약으로 1상 데이터 공개 여부는 파트너가 결정하게 될 것이다. ClinicalTrials.gov에 등록된 1상(NCT07219589) 종료 예정일은 2027년3월이다. 1상까지는 동사가 진행하고, 2상부터 Genentech이 진행할 것이다. '27년에 2상에서 다양한 적응증과 병용으로 확장되면서 대규모 마일스톤이 들어올 것을 기대한다. 한편, 삼중작용제 HM15275도 미국에서 순조롭게 2상 진행 중이고, DIO mice에서 Tirzepatide 대비 높은 지방 감소와 제지방 보존 효과를 보인 바 있어 비만 치료제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단일 작용제만 보유한 기업은 이를 매력적으로 지켜보고 있을 것 같다.

삼성전자의 주주환원과 투자

건설 Weekly | 2026.8.25



Analyst 김승준 sjunkim@hanafn.com

Analyst 하민호 minhoha@hanafn.com

주간 동향 및 이슈

주간 투자 전략 및 이슈 점검

- 수익률은 건설업이 코스피 대비 7.1%p 하회했다. 지난 주 수급은 기관과 연기금이 매수, 외인이 매도했다. 기관은 삼성물산과 GS건설을 매수했다. 외인은 삼성물산을 매도, GS건설을 매수했다. 전반적으로 코스피가 소폭 하락한 가운데, 건설주는 더 크게 하락했다. 삼성전자 배당 기대감에 삼성물산이 상승했으며, 삼성전자 광주 HVAC 플랜트 수주로 금호건설도 상승했다. 이외 대부분이 건설사들의 주가는 하락했다.
- 전국 매매수급동향은 99.3으로 2주 연속 하락했다(-0.10%p).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51주 연속 상승(+0.08%), 전세가는 62주 연속 상승했다(+0.10%). 수도권 매매가는 77주 연속 상승(+0.15%), 전세가는 78주 연속 상승했다(+0.17%). 서울 매매가는 82주 연속 상승(+0.22%), 전세가는 79주 연속 상승(+0.19%)했다. 지방광역시와 기타지방 매매가는 모두 보합, 전세가는 지방광역시 55주 연속, 기타지방 51주 연속 상승했다(각각 +0.06%, +0.03%). 광역시별 매매가는 울산(+0.04%), 대전(+0.03%), 전남광주(+0.02%), 인천(+0.01%)이 상승, 부산(-0.01%), 대구(-0.02%)가 하락했다.
- 삼성전자의 2026년 주주환원 예상 및 시행방안이 공시됐다. 3분기에 정규 분기배당을 포함해 약 30조원 내외의 현금배당을 실시할 계획(10월 이사회 때 확정)이며, 이를 포함하여 2026년 주주환원 잔여 재원은 약 90~110조원 규모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지분 약 5%를 보유하고 있는 삼성물산의 올해 예상 배당금도 상향될 전망이다. 삼성물산의 배당정책은 받은 배당금의 60~70%를 배당하는 것이다. 이번 삼성전자의 3분기 30조원의 현금배당을 고려할 때, 2026년 삼성물산의 예상 배당수령금액은 약 2.1조원이며, 이 중 60%를 배당한다는 가정이면 약 1.2조원 배당이 예상된다. 2026년 DPS 8,000원을 기대해 볼 수 있으며, 이는 시가배당수익률로 약 2.1% 수준이다. 현재 DPS 컨센서스는 3천원 내외다.
- 3대 메가프로젝트의 발표 이후, 삼성전자의 관련 투자 시계는 빨라지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2021년에 잠정 중단했던 아산 A7 공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공사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완공 목표시점은 2028년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2040년까지 아산 등에 67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아산 온양캠퍼스에 6조원 규모의 증설 공사를 9월 중 착공할 예정이다. 이는 천안/온양에 최첨단 HBM 공장을 구축하는데 56조원 투자하는 계획의 일환이다. 삼성전자 팹택 P5의 공사도 진행되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P5를 더블팹(복층)에서 트리플팹(3층)으로 확대하기 위한 산업단지계획 변경안(용적률 490%까지 상향)을 제출했다. 현재 P5 Fab 1에서 1-1 마감 공사 발주를 앞두고 있고, 1-2는 골조공사에 착수 중이며, Fab 2는 연내 착공할 예정이다. 미국 테일러 2공장도 연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2공장 부지의 기초 작업은 완료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1공장 지을 당시에 같이 공사를 수행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사 진행이 더 빠를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다.
- 하반기 여전히 가장 유요한 상승 재료는 데이터센터다. 특히 GS그룹의 동해 AI데이터센터 관련 뉴스(인허가, 자금조달) 등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관련 종목으로 GS건설을 TOP PICK으로 추천한다. 하반기 데이터센터에서 2조원 수주를 기대하는 DL이앤시를 차선후주로 추천한다. 하반기 삼성 계열사의 투자 관련한 수주 금액 또한 재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재건(해외EPC), 원전 등은 시간이 필요하다.

단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증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삼성전자 (005930.KS)	8/24	281,500	257,000	-8.70%	- AI 수요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DDR4 가격상승과 더불어 NAND 업황 개선 맞물려 - DDR 및 NAND 가격 상승은 레거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
삼성물산 (028260.KS)	8/24	395,500	364,500	-7.84%	- 원전-SMR-태양광-데이터센터 등 에너지 신사업 확대와 2027년 배당 증가 전망 2026~2028년 계열사 배당수익의 60~70%를 주주에게 환원할 계획
NAVER (035420.KS)	8/24	222,000	223,500	0.68%	- AI 데이터센터 공급 부족 속 엔비디아 지분투자 및 200MW 고객사 계약 가시화 7년 이상의 GPU 운영 역량을 기반으로 2027년부터 AI DC 매출이 본격화될 전망
대한항공 (003490.KS)	8/24	25,800	26,000	0.78%	- 화물운임, 코로나1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급등해 유가 상승의 부담을 상당히 상쇄 2026년 12월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을 마무리할 예정. 합병 이후 실적 개선 기대
KCC (002380.KS)	8/24	484,000	452,000	-6.61%	- 삼성물산 특별배당 수취액의 50% 이상을 주주에게 재환원하는 정책 신설 - 자사주 소각과 특별배당 6조원 규모 주주환원 강화에 더해 실리콘 업황 업사이클 진입
DN오tom티브 (007340.KS)	8/24	44,200	47,800	8.14%	- 글로벌 공장기계 업황 회복과 우주항공·방산·로봇 등 고수익 산업향 수주 확대 - Heller 인수 시너지 2027년부터 본격화될 가능성 높아
농심 (004370.KS)	8/24	432,500	455,500	5.32%	2Q26 Review 매출액 9,561억원(YoY +10.2%), 영업이익 593억원(YoY +47.6%) 기록 - 복미 수익성 개선 및 글로벌 라면 업체로의 밸류에이션 재평가 기대
SK이티닉스 (475150.KS)	8/24	51,300	53,200	3.70%	3Q26부터 연료전지·풍력 프로젝트와 솔라닉스 후속 사업의 매출 인식 확대 - SK그룹 및 반도체-데이터센터향 재생에너지 PPA 수요 확대 수혜 가능성
실리콘투 (257720.KQ)	8/24	47,650	49,450	3.78%	- 미국·유럽 오프라인 리테일러 주문 확대에 힘입어 2Q26 호실적 기록 - 한국 화장품 산업 역사상 최대 수출 모멘텀의 최대 수혜 업체
티에프이 (425420.KQ)	8/24	40,800	42,000	2.94%	- cpo, socamm 등 어플리케이션 확대, 고객사 다변화로 가파른 실적 개선 전망 - 테스트 수요 성장에 따른 테스트 소켓 수요 증가세 지속

단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주간(This Week)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0.22%	+3.34%p	+71.44%	+12.07%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주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5%선 적용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코스맥스 (192820.KS)	8/24	271,000	286,000	5.54%	- 국내 고성장과 미국 법인 흑자전환, 동남아 턴어라운드 동시 진행 - K-뷰티 수출 호조와 글로벌 ODM 1위 경쟁력이 본격 반영되는 가운데 12MF PER 11배 수준
NAVER (035420.KS)	8/18	228,000	223,500	-1.97%	- AI 데이터센터 공급 부족 속 엔비디아 지분투자 및 200MW 고객사 계약 가시화 7년 이상의 GPU 운영 역량을 기반으로 2027년부터 AI DC 매출이 본격화될 전망
한화에어로스페이스 (012450.KS)	8/10	1,097,000	1,105,000	0.73%	- K9 자주포천무 중심의 유럽 중동 수출 확대로 지상방산 수주잔고 약 39.7조원까지 증가 -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 성장과 수주 기대감 재차 확대될 전망
삼성SDI (006400.KS)	8/10	459,000	515,000	12.20%	- 북미 ESS 라인 본격 가동과 소형전지 가동을 상승으로 하반기 흑자 기조 지속 기대 2Q26 7개 분기 만의 흑자 전환에 이어 2027년 영업이익 1.48조원 전망
팬오션 (028670.KS)	8/10	6,040	6,320	4.64%	- BDI 강세와 탱커 운임 상승으로 벌크탱커 부문 이익이 확대되며 호실적 기대 - SK해운 인수 VLCC의 실적 기여와 중장기 운임 강세가 추가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
삼성전자 (005930.KS)	8/3	262,500	257,000	-2.10%	- AI 수요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DDR4 가격상승과 더불어 NAND 업황 개선 맞물려 - DDR 및 NAND 가격 상승은 레거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
삼성전기 (009150.KS)	8/3	1,142,000	1,318,000	15.41%	- AI 서버용 고용량 MLCC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공급사들의 증설은 제한적 - AI 가속기용 FCBGA의 대형화·고다층화로 구조적 공급 부족 장기화 전망
풍산 (103140.KS)	8/3	71,200	82,200	15.45%	- 전기동 가격 강세에 따른 메탈 이익과 해외 신동 자회사 수익성 개선 기대 2분기 이연된 방산 매출의 3분기 인식으로 실적 반등 예상
SK이노베이션 (096770.KS)	7/20	121,400	130,100	7.17%	- 윤활기유 호조와 SK온 적자 축소에 힘입어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 상회 전망 - 정제마진 강세와 그룹3 윤활기유 공급 부족으로 2026년 사상 최대 영업이익 기대
KB금융 (105560.KS)	7/13	184,400	163,100	-11.55%	2분기 추정 순이익 1.97조원으로 2조원에 육박해 지주사 설립 이후 분기 최대 순이익 예상 - 홍콩 ELS 과징금 이슈 해소로 주주환원 확대 및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
삼양식품 (003230.KS)	7/1	1,119,000	1,404,000	25.47%	- 미주·중국·유럽 중심의 해외 매출 고성장과 밀양2공장 가동을 상승으로 실적 성장 기대 - 중국 신공장 가동 및 추가 생산시설 검토로 해외 비중 확대와 단기 실적 모멘텀 부각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분기(3Q)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15.73%	+2.60%p	+41.50%	-17.91%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분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증가기준 -15%선 적용

ETF 투자유망종목

해외주식분석실



국내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KODEX 미국시테크 TOP10 (485540)	2026.07.16	16,205	14,770	-8.9%	- 미국에 상장된 대형 기술주 중 AI 관련 키워드 유사성이 높은 10개 종목을 선별하여 유동시가총액과 LLM 스코어링을 합산하여 편입 비중을 산정. 1위~3위 기업은 각각 20% 비중으로 편입해 집중도를 높인 구조 - 현재 핵심 편입 종목은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이며, AI 산업 트렌드 변화에 맞춰 새롭게 부상하는 AI 기업들을 포트폴리오에 반영할 수 있는 구조
WON 초대형IB &금융지주 (0154F0)	2026.02.24	15,160	11,680	-23.0%	-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및 밸류업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대형 증권사와 주요 금융지주 등 핵심 금융주에 집중 투자하는 패시브 ETF - 초대형 IB의 구조적 성장성과 금융지주의 안정적인 배당 매력을 동시에 추구. 미래에셋증권, 한국금융지주, KB금융, 신한지주 등 국내 금융 섹터를 대표하는 우량 종목들로 구성
KODEX AI반도체 TOP2플러스 (395160)	2026.02.27	29,560	38,450	30.1%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 양산 본격화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및 한미반도체 등 국내 AI 반도체 밸류체인 핵심 기업에 집중 투자 - 온디바이스 AI 확산과 AI 서버 수요 폭증으로 인한 메모리 수급 불균형 속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실적 개선 및 가치 재평가 기대
PLUS 글로벌 HBM반도체 (442580)	2026.07.16	106,895	98,240	-8.1%	- HBM(고대역폭메모리) 밸류체인인 핵심 제조사와 장비·부품·소재 기업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하는 HBM 집중 테마 ETF -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3사 합산 비중이 75% 수준으로 핵심 제조사에 집중된 구조이며, 그 외 글로벌 장비, 부품 관련 기업까지 편입해 HBM 성장 모멘텀 전반의 수혜 기대
ACE 고배당주Plus 커버드콜액티브 (0199C0)	2026.07.16	9,980	9,175	-8.1%	- 고배당주 80%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각각 10% 비중으로 편입하여 고배당주 포트폴리오로 시장의 흐름을 추종할 수 있는 커버드콜 액티브 ETF - 포트폴리오의 30% 비중까지 콜옵션을 매도하는 구조로 월 분배금 재원을 마련하고 비교سه 배당 종목을 편입하여 배당과 절세를 함께 추구. 향후 국내 데일리 옵션(ODTE) 도입 시 추가적인 배당 자원 확보 가능. 액티브 운용방식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커버드콜 비중 조절
TIME 글로벌우주테크 &방산액티브 (478150)	2026.07.16	21,300	19,770	-7.2%	- 우주 산업의 성장과 방산기업들의 안정적인 실적 모멘텀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액티브 ETF로 시장 상황에 맞게 편입 종목과 비중을 유연하게 조정 - SpaceX 상장 이후 본격화되는 우주 산업 투자 사이클과 글로벌 주요국들의 국방비 증액 추세에 따른 구조적 수혜를 누릴 것으로 기대
TIGER 글로벌 AI사이버보안 (418670)	2026.07.16	18,430	16,825	-8.7%	- 글로벌 기업 중 사이버보안 연관 산업에서 매출이 50% 이상 발생하는 기업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하는 패시브 ETF - AI 확산 과정에서 사이버보안에 대한 인식이 AI로 인한 시장 잠식 우려 대상에서 AI 도입 시 필수 인프라로 전환됨에 따라 AI 보안 기업들의 가치 재평가 기대
KODEX 미국 AI전력핵심인프라 (487230)	2026.07.16	23,200	19,025	-18.0%	- AI 성장 과정 속에서 전력 인프라라는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핵심 분야로 관련 기업들은 공급자 우위 구조 속에서 수익성이 개선되는 흐름 - 주요 빅테크의 파트너로 선정되고 있는 미국 전력 생산·송배전·데이터센터 핵심 10개 종목에 집중 투자

주1: 기준가는 편입일 당일의 종가

주2: 전일종가는 한국 시간으로 전영업일 15시 30분 기준

Global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CHAT (생성형 AI 및 기술)	2026.07.16	83.73	88.00	5.1%	• 생성형 AI 관련 기술을 통해 매출을 창출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에 집중 투자하는 ETF로 AI 밸류체인인 실질적인 성장 모멘텀을 누릴 것으로 기대 • 액티브 운용 방식으로 유연한 포트폴리오 조정이 가능하며 OpenAI와 앤트로픽 지분을 보유한 소프트뱅크그룹과 SK텔레콤을 편입해 비상장 AI 파운데이션 모델 기업에 대한 간접 노출까지 확보한 차별화된 구성이 특징
KBWB (미국 은행)	2026.07.16	98.37	95.62	-2.8%	• IPO와 M&A 시장 회복, AI 인프라 자금조달 확대에 따른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미국 대형은행들에 집중 투자하는 ETF • 미국 금융 섹터는 트럼프 행정부의 금융 규제 완화 기조 속 주주환원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대형은행을 중심으로 실적 성장 국면이 전개될 전망
CBR (사이버 보안)	2026.07.16	91.89	94.85	3.2%	• 사이버보안 기업으로 분류되는 글로벌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하는 대표적인 사이버보안 테마 ETF • 상위 5개 종목 합산 비중을 40%로 제한하여 대형주에 집중된 구조이면서도 그 외 네트워크 인프라, 사이버 방산 관련 기업까지 함께 편입해 사이버보안 밸류체인 전반에 노출 가능
SPHQ (미국 대형 퀄리티 주식)	2026.03.23	75.80	85.95	13.4%	• 수익성(ROE), 이익의 질(미결제영업자산 변동), 재무 건전성(레버리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S&P500 내 최상위 우량주 100개를 선별해 투자 • 매크로 불확실성 및 실적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서 탄탄한 펀더멘털을 보유한 기업에 집중해 지수 대비 견고한 하방 경직성과 장기적인 초과 수익 추구
SMH (글로벌 반도체)	2025.11.24	339.12	560.42	65.3%	• 대형주 비중이 높은 대표 글로벌 반도체 ETF. 매출의 50%가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생산 분야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 • 엔비디아의 실적과 가이드언스를 통해 AI 산업의 꾸준한 성장 모멘텀 확인. SMH는 NVIDIA와 TSMC가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 Capex 경쟁 지속 가운데 소비된 AI 시장 확장, 신제품 교체 기반의 견고한 수요 기대 유효
DRAM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2026.06.22	80.72	57.68	-28.5%	• AI 혁명 및 대규모 데이터 처리에 필수적인 컴퓨터 메모리 및 스토리지 밸류체인 관련 글로벌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한 순수 메모리 테마 ETF • 광범위한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기존 ETF와 달리, HBM(고대역폭메모리) 및 차세대 DRAM 시장을 선도하는 핵심 제조사에만 집중 투자하여 차별화된 고성장 모멘텀 수혜 기대
GRID (전력망 및 스마트그리드)	2026.07.16	177.67	180.93	1.8%	• 스마트그리드 및 전력 인프라 관련 매출 비중이 높은 글로벌 전력기기 기업들을 포괄적으로 편입하는 전력 인프라 테마 ETF • 미국의 노후화된 전력망 교체 사이클과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급증이 맞물리며 전력 인프라 기업들의 중장기적인 실적 성장 모멘텀 지속될 것으로 기대
XBI (바이오테크)	2026.07.16	152.00	165.73	9.0%	• 미국 바이오테크 종목 약 150개를 동일가중 방식으로 편입하는 분산형 ETF로 중소형 종목들의 임상 및 M&A 이벤트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구조 • 글로벌 빅파마들이 특허 만료를 앞두고 파이프라인 확보를 위해 M&A를 비롯한 투자에 적극 나서면서 바이오 업종 전반의 투자 심리 개선 기대

주1: 기준가는 편입일 당일의 종가
주2: 전일종가는 한국 시간으로 전영업일 06시(썸머타임 적용시 05시) 기준

Calendar

글로벌투자분석실

SUN	MON	TUE	WED	THU	FRI	SAT
8.23	8.24	8.25	8.26	8.27	8.28	8.29
		- 한국 8월 소비자심리지수 (E --, 이전치 106.8) - 미국 6월 FHFA 주택가격지수 (E --, 이전치 0.3%) - 미국 7월 신규주택매매 (E -1.3%, 이전치 1.6%) - 미국 8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 (E 90.2, 이전치 90.8)	- 미국 7월 개인소득 (E 0.2%, 이전치 0.2%) - 미국 7월 개인소비지수 (E 0.1%, 이전치 0.3%) - 미국 7월 PCE (E 3.6%, 이전치 3.7%) - 미국 7월 근원 PCE (E 3.3%, 이전치 3.3%) - 미국 7월 내구재 주문 (E 0.5%, 이전치 0.5%)	- 한국 8월 금리 결정 (E 3.0%, 이전치 2.75%) - 중국 7월 산업생산 (E --, 이전치 15.1%) - 일본 7월 공작기계 수출 (E --, 이전치 50.4%) - 미국 7월 도매 재고 (E 0.2%, 이전치 0.2%)	- 일본 7월 실업률 (E 2.5%, 이전치 2.5%) - 미국 8월 미시건대 소비자신뢰지수 (E 51.0, 이전치 51.0)	
8.30	8.31	9.1	9.2	9.3	9.4	9.5
	- 한국 7월 광공업생산 (E --, 이전치 5.8%) - 일본 7월 소매판매 (E --, 이전치 -4.1%) - 중국 8월 제조업 PMI (E 49.8, 이전치 49.2) - 중국 8월 서비스업 PMI (E --, 이전치 49.0)	- 한국 8월 수출 (E --, 이전치 62.9%) - 한국 8월 수입 (E --, 이전치 26.5%) - 일본 8월 제조업 PMI (E --, 이전치 55.1) - 한국 8월 제조업 PMI (E --, 이전치 53.1) - 유로존 8월 제조업 PMI (E --, 이전치 51.9) - 유로존 8월 CPI (E --, 이전치 2.9%) - 유로존 7월 실업률 (E --, 이전치 6.3%) - 미국 8월 ISM제조업지수 (E --, 이전치 55.6)	- 한국 8월 CPI (E --, 이전치 2.8%) - 미국 8월 ADP 고용 변화 (E --, 이전치 44k)	- 일본 8월 서비스업 PMI (E --, 이전치 52.3) - 유로존 8월 서비스업 PMI (E --, 이전치 51.7) - 미국 8월 ISM서비스업지수 (E --, 이전치 55.6)	- 미국 8월 비농업고용지수 (E --, 이전치 -23k) - 미국 8월 실업률 (E --, 이전치 4.1%)	

주: 1) 괄호 안은 예상치(E), 전월 순, 한국시간 기준 (*E)는 당사 추정치. 2) 유로권, 북미는 전월대비(PCE 디플레이터는 전년동월대비), 아시아, 신흥국은 전년동월대비 기준, 3) P(속보치), A(잠정치), F(확정치)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